

갈라디아서 복습:

1.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한 책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책망 또는 경고 했습니까?

2.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롬 4:9) 라고 말씀 하신 후 400 년 뒤에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도구이며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아담부터 모세 전까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힌트: 롬 2:14, 15)

가) 창세기 3 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으로 부터 숨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벌써 그것은 살인죄 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죄로 선언했습니까?

모세의 의식적 율법: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들로 부터 구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할례나 음식의 제한법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거나 섞지 않고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보존 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들 중 하나였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3. 의식적인 모세 율법은 메시아에게 초점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실체가 왔으므로 그림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므로 구약의 의식적 율법은 완전히 완성 되었습니다. 아래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골로새서 2:17 -

히브리서 8:5 상반절 -

히브리서 10:1 -

주석: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의식적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 장 5 절과 6 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찌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음식법을 따를 것을 요구 하시지는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신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그런 일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지 말고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배워 성장하므로서 더 이상 이런 양심의 경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믿음이 성장한 신자는 연약한 신자를 인내로 가르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지 강한 자이든지 그 동기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4. 사도행전 20:7 절에서는 율법이 정해 놓은 토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모여 떡을 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 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답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도덕적 율법,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 성품의 기초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5.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은 이제 새 언약 속에서 그 권위를 발휘합니다. 고린도전서 11:25; 로마서 6:14 절에서 새 언약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가) 출애굽기 24:12; 신명기 4:13 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롬 8:9; 요 14:16, 17; 히 10:16, 17)?

6.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두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37 – 40 절에서 첫째 계명을 지키려면 십계명 중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둘째 계명을 지키려면 십계명 중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모든 도덕적 법은 () 을 요구합니다. () 의 원리를 적용 해야만 도덕적 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힌트: 레 19:17, 18; 약 2:8).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도덕적 율법의 원리: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의 표준을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낮추고 또 풍습을 겹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신과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마음에 없는 글자 자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7 장은 예수님께서 낮춰진 도덕적 계명의 표준을 다시 제자리로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7. 예수님께서 율법의 글 자체보다 그 법에 대한 정신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 장 38, 39 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율법을 바꾼 것입니까? (힌트: 레 19:17, 18; 24:19 – 21) 답을 설명하십시오.

십계명을 공부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10 가지 사항: 십계명은 하나님 법 전체를 대표하는 한 부분입니다

8. 가. 십계명은 영적인 것입니다 (고전 2:10 – 16; 마 23:28).

나. 십계명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는 말씀은 모든 () 자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시 119:96)

다. 십계명은 완전하여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약 2:10; 마 5:48).

라. 모든 계명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면, 두 측면이 담겨있습니다 (엡 4:25, 28).

마. 어떤 죄가 금지 되었을 때에 그 죄와 같은 모든 종류의 죄가 금지됩니다 (마 5:22).

바. 자신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출 20:10; 마 5:19).

사. 어떤 것이 죄로 금지 되었을 때 그 죄를 짓게 되는 모든 기회도 금지 됩니다 (살전 5:22; 잠언 5:23).

아. 큰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큰 죄를 피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위해 죄를 짓는 것은 금합니다.

(약 2:10. 11; 롬 3:7, 8; 고전 10:13)

자. 이웃에 대한 의무보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먼저입니다 (눅 14:26, 27; 마 10:37)

차.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딤후 1:5; 마 22:37, 38).